

백남준의 '조수' 였던 빌 비올라 국내 세 번째 개인전

높이 5m, 폭 2.8m의 모니터 속에 상의 를 벗은 한 남자가 서 있다. 그의 몸에서 검은 액체가 하늘로 치솟는다. 이어 빨간 액체, 하얀 액체, 투명한 액체가 차례로 솟구 친 뒤 젖지 않은 원래 모습이 나타난다. 미국 출신의 비디오 아티스트 빌 비올라 (64)가 선보인 대작 '도치된 탄생'이다. 8 분짜리 영상은 촬영분을 되감기함으로써 시간을 거꾸로 경험하게 만든다.

비올라가 지난 5일부터 국제갤러리(서울 소격동) 2·3관에서 국내 세 번째 개인 전을 열어 7점의 최근작(총 상영시간 80 분)을 선보이고 있다.

1996년 이탈리아 베니스 비엔날레 미국 관 작가로 선정되면서 세계적 명성을 얻

게 된 그는 2003년과 2008년에 한국 관객 들과 만났다. 비디오 아트 창시자인 백남 준의 작업을 도왔던 '조수'여서 더욱 친근 하다. 1980년 일본에서 18개월간 선(禪)수 행을 하는 등 아시아 문화에 관심이 많으 며, 탄생·소멸·죽음·구원 등 형이상학적 인 주제를 정제되고 느린 호흡으로 표현 해왔다.

이번 전시에는 또 다른 대작 '밤의 기도'(2×5m, 18분) 외에 '물의 순교자' '내 적 통로' '조수' 등이 나왔다. '밤의 기도' 는 연극 연출가 피터 셀라스와 함께 제작 한 바그너 오페라 <트리스탄과 이졸데> 비디오(4시간)의 파생작으로, 화면을 양 분해 서로에게 빠져드는 한 남자와 여자



'도치된 탄생', 비디오·사운드, 8분22초, 5× 2.8m, 2014.

느린 호흡으로 들여다보는 '삶의 고통과 구원'

를 나란히 묘사했다. '물의 순교자'는 지 난해 5월 영국 런던 세인트폴 성당의 의뢰 로 제작한 비디오 설치작업 '순교자(흙· 공기·불·물)' 시리즈 중 한 점인데, 밧줄 에 거꾸로 매달린 남자가 물 세례를 맞은 뒤 승천하는 과정이 펼쳐진다. 그가 지난 주 작품 설치를 위해 작업 동료인 부인 키 라 페로프와 함께 방한해 기자들에게 자 신의 작품 세계를 설명했다.

- 당신은 극도의 슬로 모션으로 피사체 를 촬영한다.

"1990년쯤 인간의 감정을 긴 시간 동안 늘이면 어떻게 착상했다. 우리가 경험하 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. 신체 적·물질적인 것에 묶여 있어 보지 못한

다. 어렸을 때 호수에 빠져 의사할 뻔했는 데 그때 호수 바닥에서 푸르고 아름다운 세상을 보았다. 삼촌이 나를 건져 올렸지 만, 당시 황홀한 경험을 작품에 재현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."

- 고통과 변화라는 모티브가 중요하게 등장한다.

"현대의 매스미디어는 우리 모두를 타 인의 고통을 지켜보는 증인으로 만든다. 그리스어로 '순교자'(martyrus)는 원래 증인이란 뜻이다. 순교자는 고통과 역경, 죽음을 통해 신념을 지킨다. 이런 인간의 의지, 행동, 인내, 희생의 가치를 이야기하 고 싶다."

- 작품 속 공간이 비현실적이다. 그 속

에서 극적인 순간이 나타나고 사라진다.

"인간의 이해 범위는 놀랍도록 광활하 다. 현실과 다른 공간, 영혼의 공간도 상상 할 수 있다. 그곳에서 위안을 받고, 경계를 무너뜨리면서 나가는 힘을 얻을 수 있 다."

- 아시아 문화의 영향이 느껴진다.

"나를 가르친 일본의 선 스승에게 비디 오 작품을 보여주니 내 이마를 탁 치면서 '생각과 정보가 너무 많다'고 일갈했다. 백남준의 영향도 컸다. 그는 원하는 사람 이면 누구나 배우고 쓸 수 있는 비디오 아 트의 세계를 열었다."

전시는 5월3일까지. (02)735-8449

한윤정 선임기자 yjhan@kyunghyang.com